

商品區分 分類委員會 設置 운영

正確하고 一括性있는 分類 위해

特許廳은 지난 8월28일부터 심사1국장을 위원장으로하는 商品區分 分類委員會를 설치·운영한다.

이 위원회는 산업의 발달로 新商品의 開發 및 商品이 세분화됨에 따라 여러종류의 신상품이 출현되고 있어 商標 登錄出願의 상품구분결정을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있게 분류하기 위해서이다.

이 위원회는 심사1국장을 위원장으로 商標1과장, 2과장, 서무담당심사관, 기타 심사관으로 모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商品區分分類委員會는 △商品分類分類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商品區分의 기본 해석 및 유사군설정에 관한 사항 △新商品의 商品區分 결정 및 구분이 불분명한 商品의 商品區分 결정 △NICE분류에 관한 사항 △기타商品區分 分類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게된다.

심사관이 담당류 심사시 商品區分이 다른 류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관련심사관과 협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심사관간에 협의 조정되지 않는 경우는 그 내용과 사유를 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한다.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심의·결정해야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개최시 변리사 등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出願 및 登錄기간 2次까지 연장可能

特許廳은 出願·登錄관계의 기간연장승인을 2차까지 허용하고 내외국인 모두 30일을 연장승인해 주기로 했다.

特許廳은 지난 84년 8월1일부터 내국인 지정기간은 30일, 외국인 지정기간은 2개월로 하고, 1차에 한하여 내외국인 모두에게 30일간

기간연장승인을 해주어왔다. 이번에 이를 완화하여 내외국인 모두에게 30일까지 2차기간 연장승인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工所權관련 內容 國政教科書에 삽입

特許廳은 工業所有權法 및 發明에 관한 초·중·고교생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된 內容을 국·교教科書內에 삽입했다. 이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工所權의 중요성과 학생들의 發明活動에 대한 이론적인 자료가 현실적으로 절대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工所權 및 發明 등에 관한 내용을 삽입한 것이다.

特許廳은 文敎部 등 관련부서와 협의, 이번 학기 국교 5학년 사회과목에 삽입했다. <♣>

발명장려관 확대 이전 개관 2백 53점 전시, 일요일도 개관

본회 발명장려관이 한국종합 전시장(KOEX) 전시동 별관 2층으로 확대 이전되었다.

발명장려관에는 모두 2백 53점의 발명품(전기·전자 55점, 기계·금속 26점, 섬유·화학 30점, 토목건축 22점, 농수산 10점, 잡화 1백 10점)이 전시되었다. 특

히 발명장려관은 발명품전시장의 에도 연구실, 자료실, 상담실, 홍보관, 역사관등의 시설도 갖추고 토요일 오후는 물론 일요일도 개관하여 관람객을 맞고 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전화는 서울 551-5571~2이다. <많은 관람바랍니다.>